

숲 정이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 29).

부활 제2주일

제 1독서 : 사도 2, 42-47

제 2독서 : 1베르 1, 3-9

복 음 : 요한 20, 19-31

강론

“나+나=우리”

김동준 신부 / 숲정이 천주교회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낱말 가운데 ‘우리’라는 말은 참으로 정답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말처럼 허망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 없습니다. 우리라는 말의 실체는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서는 집합체를 “여러 개의 개체가 모여서 이룬 덩어리”라고 정의합니다. 집합체의 목적은 오로지 이권뿐입니다. 그래서 단합과 헤어짐은 반복됩니다. 그들은 한곳을 같이 응시하고 하나의 소망을 나누어 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집합체 안에서는 성장도 기쁨도 평화도 없습니다. 집합체의 통솔 기능은 물리적인 방법이나 법적인 제재 또는 협박이나 회유가 있을 뿐입니다. 가정, 직장, 사회, 국가도 이런 맥락 안에서 조망해야 합니다. 집합체 안에서는 상처와 갈등과 별리가 일상입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는 더 철저하게 방어적이 되며 이기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합체와 대비되는 개념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삶과 운명을 함께하는 몸’입니다. 그 안에는 양해와 용서가 있고 나눔과 섬김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정의와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평화의 기초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하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었고 그 비법을 가르치고 실증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도 처음엔 집합체의 양상으로 서로 반목하고 배신하고 끝내는 예수를 떠났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이권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공동체의 귀감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설정하신 미사성제와 성체성사는 집합체를 공동체로 만드는 비법이며 실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미사가 완성되어지는 곳은 성전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삶의 등지입니다.

예수 부활은 일회적 사건이지만 우리에게겐 매일 매 순간 반복되는 사건이어야 하며 공동체의 구현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자각해야 하겠습니까.

소리

“마음놓고 좀 마시자”

우리 도민 가운데 70만명이 금강물을 마신다고 한다. 도민의 3분의 1이 그 물을 마시는 셈이다. 그런데 그 물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해서 문제다. 그래서 그런지, 전주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시민들이 모악산까지 올라가서 물을 떠다 먹는다. 어떤 이들은 정수기를 두고도 물을 사 먹는다.

예전처럼 먹고 사는 일이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인지, 사람들이 지금처럼 건강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때도 일찍이 없었던 듯하다. 매사에 건강을 우선으로 치기 때문에 그런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야만인(?)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더러 만난다. 꼭 그래야 하는 건지 알아듣기 힘들다. 육신의 건강도 좋지만, 정신적으로는 피곤을 느낀다.

과학문명의 발달로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편해졌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개발을 이유로 자연을 너무나 함부로 했다. 이제는 마음놓고 숨을 쉴 수도 없으려니와 물 한모금 마시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하게 되었다. 편리한 생활도 좋지만, 이러다가 어찌 될 것인지 두렵기만 하다.

하느님께 좋게 만들어주신 우주 만물을 우리들은 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답시고 영망으로 해놓고 만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고 만 셈이다. 알게 모르게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른 꼴이 되고 말았다. 이제부터라도 서로 손목에 힘을 풀어야만 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구를 살리는 일에 나서자. 우리 모두 함께 살아 남기 위해서. ㉠

숲정이 산책



성서교실 25

“하느님께서 네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창세 21,9-21)

하갈이 울부짖는 모습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소실 하갈 사이의 갈등은 이미 16장 1절-16절에 소개되었다. 16장의 기록은 솔로몬궁의 서기관들이 작성했고 21장의 기록은 엘로히스트들이 작성했다. 엘로히스트는 기원 전 922년 솔로몬 왕국이 남부 유다와 북부 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에서 저술 활동을 벌인 사람들로써 하느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 부르는데서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다. 이들은 하느님에 관한 일들을 묘사할 때 꿈이나 천사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16장의 기록은 임신중인 하갈이 사라는 업신여기고 이에 분개한 사라는 하갈을 구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1장의 엘로히스트 기록에는 하갈이 별다른 이유없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난다.

사라는 경멸적인 어조로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에게 조른다. 심지어는 두 모자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는다. 사라는 자신과 이사악이 언계 된 기득권을 조금도 침해받지 않으려고 분쟁의 여지를 그 싹부터 냉혹하게 잘라버린다. 말하자면 이사악이 확보한 상속자의 지위를 넘나보지 못하도록 미리부터 췌기를 막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사라의 양보심없는 결단을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양탈을 부리는 사라 앞에서 아브라함은 몹시 난처해 한다. 이에 하느님께서 두 여인 사이에 끼여 아브라함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위로하시면서 해결책을 마련하신다. “그 애와 네 계집종을 걱정하여 마음 아파하지 말고 사라의 청을 들어주어라. 이사악에게서 난 자식이 네 정식 혈통이 되겠지만 이스마엘도 너의 자식이니 그의 후손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느님의 해결책은 한쪽을 위해서 다른 한쪽을 희생시켜야 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방법이었다. 사라의 소원대로 이사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정식 혈통을 이어가실 것을 보장해 주신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만큼 그 아이에게서도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고 약속해 주신다. 하느님의 이 해결책은 사라와 하갈 모두를 만족시키고 두 여인 사이에서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도 큰 고민을 덜게 된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양식과 물자루를 준비하여 하갈에게 매어주면서 두 모자를 집에서 내보내고 하갈은 아이와 함께 브엘세바의 황량한 들판에서 헤매다가 물이 떨어지자 가시덤불 그늘에 아이를 내려 놓는다. 어미로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바라보고 싶지 않아서이다. 메마른 들판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진다. 이스마엘의 이 울부짖음은 억울한 이들의 송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자비로운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다. 엘로히스트는 하느님이 직접 응답하시지 않고 하늘의 천사를 시켜 응답하셨다고 에둘러 표현한다. “하갈아 무슨 일이나? 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느님은 하갈의 눈을 열어 샘을 발견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갈은 물을 떠다 아이에게 먹이고 둘 다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난다. 하느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해주시어 이스마엘은 바란 사막에서 건강하게 자라 활을 쓰는 사냥꾼이 된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다. 아무도 그들의 억울한 사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 브엘세바의 빈들에서 어머니를 잃고 외로움과 갈증 속에서 울부짖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느님은 들어주셨다. 멀리서 우는 아들을 지켜보는 하갈도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져 소리 죽여 통곡했을 것이다. 이스마엘의 울부짖음과 하갈의 통곡은 하느님의 도우심을 정식으로 청하는 기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의 울음소리만으로도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충분히 움직이고 남았다.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에맥 미술학원
• 입시 미술 • 아동 미술
• 취미(판화, 수채화, 동양화 교실 운영)
원장 김준태(시문)
주택은행 옆 천보정 회관 3층
☎ 231-5285

축! 확장 이전
결혼예물전문(금·은·보석·시계)
고려보석
김형태(올리아노)
박태연(마르타)
전동성당 사거리
☎ 82-9005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 75-0550

잠 간

“생명을 위하여, 지구를 위하여”

• **지구의 미래는?**

“2천년대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의 머리에는 ‘환경오염’이라는 글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곧 생명의 문제이며,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계획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지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다른 피조물들까지 길이 살아갈 소중한 터전입니다. 지구를 쓰레기와 폐수와 핵 폐기물과 유독가스로부터 구해내지 못하면 빛나는 문화 유산도 경제 건설도 이데올로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억합니다!**

1970년 4월 22일 미국의 한 상원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지구의 날은 국경을 넘어 인류 공동의 연대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날은 아름다운 우리의 강산을 지키는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각종 합성세제를 덜 쓰기로 결심하는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경제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마구 파헤쳐지는 자연을 돌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는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각종 오염 물질에 중독되어 신음하는 지구가 우리 생명의 바탕임을 깨닫고,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경감룡 주교)는 1993년을 ‘생명과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 중심의 해’로 정하고, 환경과 생명문제를 다룬 비디오 제작과 보급에 힘쓰는 등 이 문제의 중차대성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널리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므로, 이번 지구의 날을 계기로 우리 신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인도하에 환경운동의 대열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교 구 소 식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4월19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나의 원발.

1. **축! 건진** : 4월25일(일) 오전10시30분 전동 성당.
2. **천호 피정 안내** : 4월24일-25일 주제-그리스도인의 영성, 강사-김정남 신부, 4월27일(화) 주제-하느님을 섬김, 강사-왕수혜 신부, 문의-천호 피정의 집 73-6600.
3. **수녀연합회 성가(전례) 연주회** : 5월3일-4일 나바위 피정의 집, 강사-이종철 신부.
4. **혼인강좌** : 4월25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1만원, 문의 85-5098.
5. **전동가족 대잔치** : 4월23일-전야제(개막식), 농촌 본당 돕기 자선 바자회, 4월24일-본당가족잔치, 사랑의 한마당, 4월25일-건진성사, 축하 행사, 시상식 및 폐회식.
6. **성소후원회 회원 모집** : 4월23일(금) 오전10시 가톨릭센터.

※ **축! 영명** : 21일(성안셀보) 김윤섭 신부님.

- **성소모임** 인보성체수도회 : 4월25일 오후1시30분 본원(0652)84-3231.
 까리파스수녀회 : 4월25일 오후2시 신동 성당 수녀원(0653)54-2636.
 천주의 성요한수도회 : 수시로 성소 상담, 문의(062)529-0041.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화장을 지을 때는 수건을...

여성들이 화장을 고치거나 지을 때 1회용 화장지를 흔히 사용하는데 이것들은 한 번 쓰고 내버리므로 자원을 낭비하고 쓰레기통만 채우게 됩니다. 따뜻한 물과 함께 수건을 사용합시다.

할 티 생 수

청주교구 미원 성당 샘플
 김 일 수(요 션)
 소 화 숙(수산나)
 ● 전주(0652)222-7415
 이리(0653) 52-5595

커넨·양재
현대 흥패션 학원

• 초보자를 위한 무료 강습 실시
 • 취미반·부업반·예비신부 우대
 한 순 옥(요안나)
 원대병원 앞
 ☎ 54-6890

서범석 한의원

원장 서 범 석(콜베)
 팔달로변 덕진 성당 옆
 ☎ 72-2665
 75-3533

무공해 천연세제 및 샴푸
늘 푸른 집<대리점>

• 샴피랑 : 온몸,샴푸,린스 겸용
 • 천연샴 : 부엌용(아기샴,맑은샴)
 전 경 자(베로니카)
 ☎ 86-2050
 ☎ 012-682-6543

요심이 (1025) 김병오



본당 설립 100주년 기념 성전
신축을 위한 바자회
 • 일시 : 5월1일-4일(4일간)
 • 곳 : 전주 전동 성당
 • 품목 : 음식부, 토산품
 주최 : 천주교 전주교구 고산 성당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오순절 평화의 수도회 성소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 여성
 일시 : 4월 25일 오후2시
 장소 : 삼랑진 본원
 문의 : (0527) 52-4241

산 농 서 실

고 영 선(마 태 오)
 송 춘 섭(로사리아)
 • 진교사거리←→병무청사거리
 • 기린B/D(기아차 전시장) 3층
 ☎ 88-5580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랭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부활 제2주일.

1. 본당신부님 은경축: 5월10일 미사 전 신부님을 위한 기도.
2. 여수녀님 피정: 20~29일. 많은 기도바람.
3. 예비자 교리: 수요일-저녁미사 후, 일요일-장엄미사 후.
4. 모임: ①대건회(오늘 장엄미사 후)
5. 알림: ①25일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음 ②성미 주머니 및 돼지저금통 사무실에 내주세요.
6. 금주 청소: 중노23, 24번.
차주 청소: 중노25, 26번.
7. 사랑의 성금: 50,000원 누계-672,000원
 지난주 봉헌금: 1,805,250원 교무금: 1,573,000원
 2차헌금: 388,71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사순절 돼지 저금통 안내신 문은 25일까지 내주세요.
2. 예비자 교리: 매주일 공식미사 후-수녀님.
매주일 목요일 저녁미사 후-신부님.
3. 유아 세례: 24일 후 6시30분, 사무실에 신청바람.
4. 회합: ①성우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빈첸시오회-24일 오전 10시.
5. 축! 결혼: 25일 12시.
신랑-박종현 베네딕도 군.
신부-황영희 양.
금주 전례: 해설-조옥례, 독서-육종만 씨 부부.
봉헌-이창기 씨 가족.
차주 전례: 해설-유두석, 독서-나경섭 씨 부부.
봉헌-채용석 씨 가족.
 지난주 봉헌금: 1,048,690원 교무금: 913,7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불 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 동 옥

◎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삽시다.

1. 본당 발전을 위한 2차헌금: 오늘.
2. 모임: ①성가정회, 청년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성모회-다음주일 ③울뜨레아-24일(토) ④유아 영세-다음주일(오전9시)
3. 예비자 교리: 매주일 공식미사 전(오전 9시30분)
4. 미사시간 변경: 저녁 7시30분으로.
5. 주일미사 참여와 기도생활은 신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6. 주일미사를 권하지 말고 미사 시작 10분 전에 성당에 옵시다.
7. 페루 선교사 지원 교구 2차 헌금: 다음주일.
8. 감사: 부활절 행사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제대꽃-이승복(프란치스코)
 지난주 봉헌금: 707,320원 교무금: 219,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축! 영세: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세신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회의: 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2. 모임: 전례부-4월22일(목) 오후8시.
3. 알림: ①다음주일(4월25일)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음.
②본당 청소년(선후배) 체육대회-4월18일(오늘) 교육대학 운동장
③본당 성지순례-5월28일(금) 장소-서울 절두산, 회비 7,000원
④사무실에 신청바람(신청 마감 5월2일까지)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부활 제2주일

1. 견진교리: 매주 수요일 저녁 8시(4월21일)
2. 사목회: 금요일(23일) 저녁 8시.
3. 다음주: 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4. 혼배미사: 오늘 12시. 많은 참여 축하바랍니다.
5. 불성체 하실 분: 신청바람.
6. 매주 월요일: 새벽미사 포함.
7. 청소봉사: 2구역 1반, 2반.
 지난주 봉헌금: 1,060,800원 교무금: 1,263,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단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1. 금주: ①본당의 날 행사를 위한 2차헌금 ②중·고생 견진교리(후 2시) ③본당의 날 행사 전체 예행연습(후 5시)-제단제작, 봉사·행사요원 모두 참석바람.
2. 사순절 돼지저금통(신학생 후원) 봉헌바람: 사무실.
3. 감사합니다: 성당 창문·스테인드 글라스 봉헌(이백만원)-이중두(첼리교)
4. 전동가족 대잔치(4월23일~25일)
첫째날(23일)-개막미사(후 5시), 전야제(후 8시), 농촌 본당 돕기 자선 바자회(행사전기간)
둘째날(24일)-본당 가족 대잔치(14:00~전기간), 사랑의 한마당(14:00~18:00) 3부: 시상식 및 폐회식(~18시50분)
셋째날(25일)-1부: 주교님 미사 및 견진성사(10:30~12:30) 2부: 개회식 및 축하행사(14:00~18:00)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상 근

1. 성소주일 행사: 신학교 방문 5월2일 전 8시30분 출발. 회비: 삼천원(음식제공) 선착순 80명. 대상: 청소년.
2. 본당 밭꽃놀이: 19일 전9시30분 송광사. 도시락 개인 지참.
3. 가정방문 일정: 20일-16구역1반 전9시, 16구역2반 후3시. 22일-16구역3반 전9시, 16구역5반 후3시. 23일-16구역6반 전9시, 16구역7반 후3시.
4. 회의: 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성모회-21일 어머니 미사 후. 빈첸시오-24일 전10시30분. 뜻있는 분을 환영합니다.
5. 본당창고 기증: 이충원(말구) 형제께 감사드립니다.
6. 부활축제 배구대회: 오늘 공식미사 후. 학생·청년·장년·부녀 모두 모여 한마당에서 한마음이 되어봅시다.
 부활성야 봉헌금: 1,668,680원 교무금: 3,268,530원
 부활대축일 봉헌금: 1,662,47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울뜨레아: 오늘 미사 후.
2. 반모임: 20일(화)오전-성원, 오후-한양 윤남, 저녁-삼정1, 3.
21일(수)오전-화산1, 오후-신일.
22일(목)오전-거성 그린1, 오후-거성 그린2.
3. 꾸리아: 다음주일 미사 후.
4. 대건회 폐품 수집: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5. 성령 묵상회: 26일(월)~5월1일(토) 오후 7시30분~10시.
금주 전례: 정 결, 독서·봉헌: 김수옥, 이 건.
차주 전례: 이완자, 독서·봉헌: 김희숙, 최종호.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상 호
FAX 223-3821 사목회장이 동 섭

◎ 오늘은 예수 부활 제2주일입니다.

1. 자모회: 21일(수) 오전 11시.
2. 교미시용: 24일(토) 오후 3시. 3. 유아 세례: 다음주 오후 4시.
* 구역장, 반장님 5월부터 구역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역미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구역반장님들은 구역모임을 제정비하시고 모임 일자와 미사 봉헌 일자를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안내: 금주-인류의 모후, 예언자.
차주-즐거움의 모후, 천상의 모후.
 지난주 봉헌금: 1,861,344원 교무금: 2,183,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덕 도

1. 모임 안내: ①바자회 준비모임-저녁미사 후.
②반회장 기도회 준비모임-23일(금) 10시 미사 후.
2. 박보나수녀님 휴가: 19일(월)-28일(목)
3. 축! 영명축일: 24일(토)은 박보나수녀님 영명축일입니다. 박보나수녀님 영육간을 위해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차주 모임: 반석회, 요셉회, 사목회.
신축헌금 봉헌액: 5,440,000원
금주 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엄정준 ②임효정
봉헌안내-이종표 부부, 전형설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한은, 독서①안문수 ②김미숙
봉헌안내-소철영 부부, 김갑수 부부.
 지난주 봉헌금: 2,104,270원 교무금: 3,603,000원